



목장원유가 현실화 결의! '한지붕 한가족' 낙농제도 개혁 주문!

- 4.18일(월), 협회 2011년도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



목장원유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전국 낙농가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협회는 4월 18일(월)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11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 대의원들은 이상기후로 인한 젖소유량 감소, 생산비 증가로 인해 목장원유가 인상이 시급하다며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강력 요구하였으며, 이 기회에 '한지붕 세가족'을 '한지붕 한가족'으로 갈 수 있는 낙농제도 개혁에 앞장설 것을 강력 주문하였다. 또한, 구제역 살처분 낙농가 보상대



현장스케치 2



공로패 수상자들의 기념촬영



협회 정창영 감사가 2010년도 사업실적 수치결산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이성주 서기관이 축산경영과 사무관으로 재직 당시 가진 소회를 밝혔다

책 마련,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대책 및 향후 접종 시기 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훈 대의원의 낭독으로 ▶ 목장원유가 현실화 결의를 비롯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우유와 쇠고기 생산 매진, ▶ FTA를 비롯한 대내외 위기상황 능동적 대응, ▶희망 젖소 나눔 운동 적극 동참 및 구제역 방역활동, 친환경축산 선도,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목장경영 안정 및 원유수급대책 수립 (목장원유가 현실화, 구제역 피해낙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방안 마련, 다산우 장려를 위한 체세포 1등급 완화), ▶낙농제도 개혁 및 생산기반 유지 대책 수립 (낙농조합 집유일원화를 위해 낙농진흥법 개정, 농가 소득감소 대책 사전수립, 우리 우유, 육우 소비 기반유지를 위한 대책 수립), ▶비용절감 및 환경·분노대책 (사료가격 안정대책 수립, 공공 육성우목장 설립 및 축산분노 자원화, 가축사육시설 정책대상 포함-무허가 축사 양성화대책 일환, 낙농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3개항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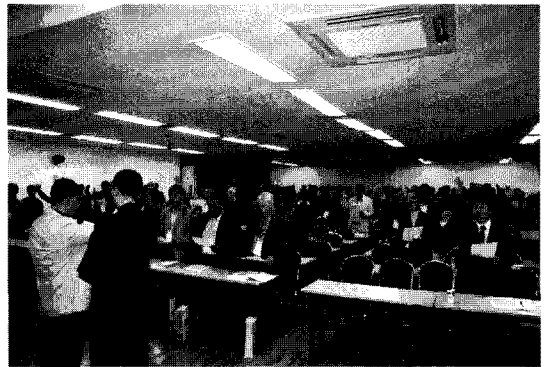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 정창영 감사로부터 2010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부의안건으로 의안 제1호 2010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 제2호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 심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의안 제3호 감사선임의 건에 대해 유진형(서울우유), 황규택(충남)을 감사로 선임하였다.

정기총회 개최에 앞서 개최된 식전행사에서는,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이성주 서기관을 비롯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낙농육우 농가 권익대변에 앞장서 주

신 분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목장 원유가 현실화를 위해 협회내 비상대책위원회, 낙농관련조합협의회와 연대를 통해 신속히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투쟁동의서 징구, 투쟁기금 거출 등 향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지역에서 적극 결합하여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㉞



목장경영안정 및 원유수급대책의 수립과 낙농제도개혁 및 생산기반 유지대책의 수립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결 의 문

하나, 우리는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우유와 쇠고기 생산에 매진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FTA를 비롯한 대내외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낙농육우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구제역 피해 낙농가의 목장 재건을 위해 '희망 젖소 나눔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구제역 방역활동, 친환경축산 실천에도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목장원유가 현실화로 목장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항구적인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회를 구심점으로 전국 낙농육우 농가들이 단합할 것을 결의한다.

2011. 4. 18

한국낙농육우협회 대의원 일동



건의문

- 목장경영 안정을 위한 조속한 대책수립을 촉구합니다! -

우리 낙농육우농가들은 그동안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생업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구제역 파동이 쓸고 간 상처는 크고 골이 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젖소의 8.5%가 땅속에 매몰되면서 피해 낙농가의 고통은 물론 후폭풍으로 우유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 기후에 따른 젖소 산유량 급감, 생산비 증가로 인해 목장경영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은 도외시한 채 국민을 위한답시고 수입 유제품에 대해 무관세물량을 대량으로 개방한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우유의 공급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낙농정책의 기본목표입니다만, 정책의 기본원칙조차 망각한 정부의 조치로 인해 낙농현장의 민심은 흉흉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속한 대책 수립에 있으며 이는 정부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구제역 젖소 살처분 낙농가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목장원유가 현실 회를 통해 전국적인 낙농생산 기반유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이를 실기한다면 또다시 농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대책마련을 건의드리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다음 -

1. 목장경영 안정 및 원유수급대책 수립
 - 목장원유가 조기 현실화
 - 구제역 피해 낙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방안 마련
 - 다산우 장려를 위한 체세포 1등급 완화
2. 낙농제도 개혁 및 생산기반 유지 대책 수립
 - 낙농조합으로 집유일원화를 위해 낙농진흥법 개정으로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혁 실현
 - FTA대비 실질적인 농가 소득감소(쿼터삭감) 대책 사전수립
 - 우리 우유, 육우 소비 기반유지를 위한 대책 수립
3. 비용절감 및 환경·분노대책
 - 사료가격 안정대책 수립
 - 공공 육성우목장 설립 및 축산분노 자원화
 - 가축사육시설 정책대상 포함(무허가 축사 양성화대책 일환)
 - 낙농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2011. 4. 18

한국낙농육우협회 대의원 일동